



제 2 호  
2020.1

#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소식지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 경기중부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소식지 제2호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소식지 제1호 합본 | 발행일자 2021년 1월 10일 | 발행인 하상수 | 기획편집 문화공동체 허용 | 전화 070-4120-6150 | 이메일 aptlabor@gmail.com | 밴드 https://band.us/@aynodong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20, 2층

##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부설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의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증진과 고용안정, 입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스스로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를 창립한다.

그간 우리가 겪은 아파트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입주민들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에 정말 고마웠다. 몇 몇의 무시 감질 천대에는 화가 났지만 속으로 삭일 수밖에 없었다. 초단기 근로계약에 사표와 재계약을 반복하면서 '혹시 잘리나' 몹시 떨었고, 초소에서 먹고 자고 휴게시간을 늘여 월급을 깎아도 제대로 쉬지 못한 적도 많았다.

대체 우리가 누구인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때까지 이 나라 산업화의 역군으로 험한 일도 마다치 않고 청춘을 다 바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어 경험이 풍부하고 삶의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처지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침묵과 속삭이에서 벗어나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고자 한다. 사람이 사람대접받고 노동이 신성한 노동의 가치로 존중받는 참세상을 아파트에서부터 만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경비원만이 아니라 미화원과 기전, 경리 등의 관리원들도 함께 뭉칠 것이다.

아파트노동자협회는 아파트 노동자만의 권익을 이기적으로 관철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입주민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일할 것이다. 입주민과 노동자와 지사체가 서로 손잡고 사랑과 웃음이 꽃피는 행복한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앞장설 것이다.

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의 아파트단지에서 일하는 경비 미화 관리 노동자들이여! 노동인권과 고용안정과 상호부조를 위하여, 입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아파트 민주주의를 위하여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로 모두 모이자! 그리고 함께 나아가자!

2020년 12월 14일~15일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창립대회 참가자 일동

##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부설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규약

1.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는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력한다.
2.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는 지역 아파트 미화·관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3.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는 아파트의 입주자들과 노동자들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4.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는 지역의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한다.
5.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는 전국 각 지역 아파트 노동자들과의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경과보고



### 1. 찾아가는 실태조사

- 경기도 노동국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경기중부 아파트 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구성
-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약 350개 아파트단지 및 차레 순방, 경비노동자 대면 실태조사

### 2. 경비노동자 간담회 및 정책제안

-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조례 제정 추진 : 안양 최병일 부의장(의정권한대행) 정덕남 시의원(조례 대표발의), 군포 성복임 시의원, 김귀식 시의원, 의왕 윤미근 시의원(전반기 의장), 과천 제갈임주 시의원, 윤미현 시의원과의 면담
- 4개 시의회와 경비노동자 간담회 진행, 아파트단지별 경비노동자 간담회
- 군포시의회, 의왕시의회, 과천시의회, 안양시의회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조례 제정

### 3. 현안해결

- 선거후확인 소송에서 직무가 정지된 동대표회장이 직무대행에게 아파트 직인을 넘기지 않아 생긴 안양 평촌1차항양 아파트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 안양 관악부영 아파트의 관리소장-경비노동자 갈등 중재 조정
- 안양7동 매가트리아 70대 고공 위기 해결 지원, 기타 안양 비산 임곡아파트, 의왕 오전 대명 구름채의 경비노동자 고충 상담 등
- 군포 한양목련 경비해고위기 5인 중 3인 재계약 및 2인 개별구제 지원

### 4. 상생협약

-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과천 아파트 입주자 대표-아파트 경비 지원사업단, 상생방안 모색 간담회
- 경기중부 최초 군포 오금동 퇴계2차 아파트 상생협약 체결(동대표회장-노동자 대표-시의원-비정규직센터)
-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주최 '안양시 공동주택 종사자(경비원,미화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 참여 등

### 5. 아파트노동자협회 창립준비

-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협회 추진위 모임
- 준비위 모임, 규약-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임원 및 운영위원 추천, 회원 모집 시작, 코로나 방역 철저 하에 12/14~15 창립대회 개최 결정.
- 12/14~15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창립대회

##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의 회원이 되세요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과 성격] 본 단체는 아파트 노동자들의 제반 권익과 지위 향상, 입주자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 아파트 노동자단체이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그 목적과 성격에 맞는 상담, 조사, 교육, 홍보, 조직, 문화, 행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제4조 [회원] 본 단체의 회원은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규약에 동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이하 생략)



##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부설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창립을 센터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젊어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키우는 데 온몸을 바치셨습니다. 선배 노동자들의 노력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그 아파트는 내 손으로 짓기도 했고 새로운 노동의 가치를 만들어 내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아파트는 갑과 을의 관계보다,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보다 훨씬 가까운 공동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록치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이지만 갑질에 의해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또 많은 곳에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노동자들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끄러질까 아무도 밝기 전 새벽에 눈을 치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수북히 쌓인 낙엽을 쓸었습니다. 입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밤늦게 순찰도 돌았습니다. 격일 맞고대로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일기에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아저씨께서 매일 우리가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밖에 있는 쓰레기들도 치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 편지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아 올림!

민아와 같은 어린이들의 감사 편지 때문에, 힘들었던 것 내려놓을 수 있었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많은 입주민들이 있기에 힘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파트노동자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고 입주민들과 같이 아름다운 아파트공동체를 만드는 구성원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협회는 내가 존중받기 위한 집단의 힘입니다. 상생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전국적으로도 활발하게 아파트노동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는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노동자들과도 교류하고 연대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 아파트노동자들의 인권과 일할 권리가 증진되도록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대표 하상수



### 창립대회를 축하해주신 분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군포시)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양시 만안구)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양시 동안구)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양시 동안구) | 최대호 (안양시장) |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 | 최병일 (안양시의회 부의장, 의정권한대행) | 윤미근 (의왕시의회 시의원) | 윤미현 (과천시의회 시의원) | 김귀식 (경기도 노동국장) | 정석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중부지부 의장) | 서승무 (안양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



2020년 경기중부 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과 지역의 수많은노동자들이 뜻을 모아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를 창립했습니다. 2020년 12월 14일~15일, 양일에 걸쳐 군포 세환타워 9층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01 안양시 H아파트입금체불 해결과  
고용안전 권리선언

2020년 9월, 안양시 동안구 소재 H아파트에서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와의 갈등으로 아파트노동자의 임금이 두 달간 체불되었다. 안양시 소재 H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장 C가 법원에 의해 회장직무 정지가 되었지만 직인을 회장권한대행에게 반납하지 않고 이중계약을 한 D관리업체에 넘겼다. C회장과 D관리업체는 기존 관리소장 P를 업무에서 배제하라며 직인을 넘겨 주지않아 은행인출을 하지 못해 급여지급을 미룬 것. 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은 정치계와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들의 임금체불문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안양시와 안양시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도 노동국, 고용노동부도 협력했다.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의 갈등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체불된 임금이 모두 지급되도록 해결했다.

또한 2020년 10월 16일에는 이 아파트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계기로 아파트노동자 고용안전 권리선언식을 가졌다. 권리선언문은 1. 고용불안-단기계약 근절 2. 자유로운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확보 3.일자리 안정기금 감액 반대 4.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5.부당업무지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 총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02 안양시 M아파트 70세이상 경비노동자  
대량실직위기 해결

2020년 12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 대단위 M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70세이상 경비노동자를 채용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영업계획서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C영업업체와의 최종계약을 거부하고, 새로 E영업업체와 최종계약을 체결하여 70세이상 경비노동자의 대량실직위기를 해결했다. 고령을 이유로 채용 모집에서 차별하면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L관리이사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낙찰된 C업체에게 고령자 고용차별 금지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적절한 대안 제시가 없어서 C업체 대신에 E업체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E업체는 자진퇴사자 외에는 전원 고용승계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파트공동체의 상생문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노동국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소속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지원사업단은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회의의 주선으로 12월9일 M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아파트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상생문화 조성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했다.

03 안양시 B아파트  
갈등조정해결

안양시 B아파트의 경우 근태관련 지적을 받은 노동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용역업체와의 갈등이 있었다. 노동자는 이에 불복하여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적법한 항의절차를 밟겠다고 나섰다. 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이 중재에 나서자 노동자는 용역업체와 관리소장의 사과만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했다. 상호간의 이해가 총돌해 빚어진 갈등으로 중재와 갈등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

04 군포시 H아파트  
갱신대기권무시 부당해고 해결

최근, 군포시 H아파트는 신규 경비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관리소장이 일방적으로 경비노동자 5인을 해고하고 새롭게 경비모집 공고를 냈다. 아파트노동자협회는 해고위기에 처한 경비노동자와 함께 노동부를 방문해 근로감독관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고 비정규직센터 방문 상담했다.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군포 시의회도 부당해고를 인지하고 설득에 나섰다. 3인은 재계약이 성사되었으나 2인은 재계약을 거부당해, 아파트노동자협회와 노동부 안양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무사와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지원받았다. 관리사무소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하고 일방통보한 것은 엄연한 부당해고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이 아파트에서는 야간 휴게시간 비상근무 임금 미지급건도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중이다.



미디어피아  
(https://www.mediapia.co.kr)  
신영배 전문기자 기사 발췌 정리

갱신 기대권 인정하는 대법원  
2014두45765 판결과 해설

**판결 요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인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해설**  
근로자의 불법 비리나 건강 악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률

**제4조의4**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해고 등에 대해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의3**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시 아파트노동자 권익보호조례 내용비교

시	발의 시의원	제정일	조례보호대상 노동자범위			시장과 입주주민기본책무		시 지원내용			시 실태조사, 시정권고, 교육 등				
			경비원	미화원	관리원	인권보호	기본시설 제공	기본시설 지원	법률지원	심리치로 지원	실태조사	시정권고	보조금 제한	교육	홍보
군포	김귀근	9.29	○	×	×	○	○	○	○	○	○	○	○	○	○
의왕	윤미근	11.16	○	○	○	○	○	○	○	○	○	×	○	○	×
안양	정덕남	12.21	○	×	×	○	○	○	○	○	○	×	○	○	○
과천	윤미현	12.22	○	○	○	○	○	○	○	○	○	○	○	○	○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요지

[시행 2020.11.16.] (제정) 2020.11.16 조례 제1789호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8조(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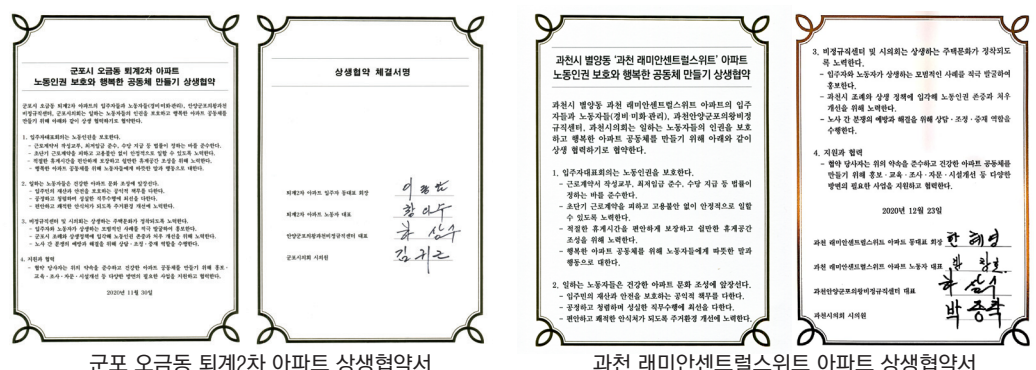
이하생략



조례요지소개

모범적인 조례를 소개합니다. 2020년 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의 성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 지역에 모두 공동주택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의왕시의 조례가 가장 광범위하고 현실적으로 권익보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경기중부 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는 시민의식 개선뿐 아니라 제도개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사는 아파트 문화를 위한  
상생협약 모델



아파트노동자도 우리 지역의 시민입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아파트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는 아파트와 노동자, 지방정부의 상생협약을 제안합니다. 상생협약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연락주세요. 찾아가 함께 논의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군포 오금동 퇴계2차, 과천 래미안센트럴스위트 아파트는 2020년 상생협약을 맺었고, 안양 평촌1차 한양아파트는 아파트노동자 고용안전 권리선언을 선포했습니다. 더 많은 아파트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와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상생협약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경비·청소·관리사무소),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와 000 시의원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협약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노동인권을 보호한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수당 지급 등 법원이 정하는 바를 준수한다.  
1년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적절한 휴게 시간을 편안하게 보장하고 안전한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대한다.
2. 일하는 노동자들은 건강한 아파트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입주자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를 다한다.  
공정하고 청렴하며 성실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편안하고 쾌적한 안식처가 되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3. (비정규직센터 및 시의원)은 상생하는 주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입주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한다.  
시 조례와 상생정책에 입각해 노동인권 증진과 주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노사 간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상담·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4. 지원과 협력  
협약 당사자는 위의 약속을 준수하고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홍보·교육·조사·자문·시설개선 등 다양한 범문의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2020년 월 일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 ) 아파트 노동자 대표  
(비정규직센터 대표, 000 시의원) 대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무료노무법률지원 및  
마을노무사제도  
갑질피해 부당대우 상담  
**031-8030-4541**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노동인권상담, 회원가입  
**070-4120-6150**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창립기념 평의회원을 찾습니다  
창립기념 평의회원은 든든한 후원회원  
아파트노동자의 노동권리향상에 뜻을 모아주세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 1회 30만원 이상 후원  
• 월 1만원 이상 정기이체 후원 약정  
• 개인이나 단체 모두 가능  
• 명예회원증서 증정  
• 협회 행사, 교육 우선권 부여  
후원계좌 : 농협 301-0212-2732-61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는 아파트노동자 스스로가 노동권익을 지키고 더 나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한 자립단체입니다. 창립을 축하하며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살아가는 아파트상생문화를 만들기 위해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가 함께 합니다.

- 2021년 1월 5일까지 후원해주신 분들 (가나다순)
- 개인후원 | 국상표, 신영배, 양승정, 이하나, 장재근, 정금채, 조태영
  - 단체후원 |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